

[아버지 칼럼 11]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강철희 / 페이지 수: 2

백여 년 전 포드라는 사람이 꿈을 가졌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를 보면서, 그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말이 끌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잘 굴러다니는 그런 마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이 끌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마차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최초의 자동차였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포드는 모든 부품을 자기 스스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든 자동차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포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엔진을 들여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세우고 그 차 곁으로 다가갔고, 곧 그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칩니까?”, 포드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내가 만든 자동차입니다.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묻는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계획대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영육적, 관계적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고, 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삶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과 사랑입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늘 생명력 넘치게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민14장28절)”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존재는 모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보고, 만약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절망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며,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자녀들은 부모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성을 사랑가운데 배우고 행할 때, 그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영육적 존재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조기 유학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일 년에 한두 번 다녀오는 기러기 아빠들이 있고, 그나마도 가지 못하는 핑퐁 아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적시해야 하는 것은 그런 교육은 모두 육적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육적인 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복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영육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만, 모든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좌소’ 또는 ‘하나님의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그곳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육적 균형이 잡혀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한 때 사람들은 IQ(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감성지수라는 EQ를 통해서 사람의 성공을 논했으나 오늘날에는 NQ(Network Quotient)라고 해서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정은 모든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고양되고, 가정을 통해서 신앙적인 구원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성을 키워가면서, 세상과의 관계성을 맺는 방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관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사회의 위험한 인물이 되어가게 됩니다. 가정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을 살리는 사역이요, 한 사회를 살리는 사역이며, 또한 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 안에서 귀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철희 / 대전 서문교회, 시애틀 3기>

* 출처 : 두란노 아버지학교(<http://www.father.or.kr>)